

第16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碧骨堤雙竜놀이

由來

- 碧骨堤
- 丹若
- 雙竜놀이

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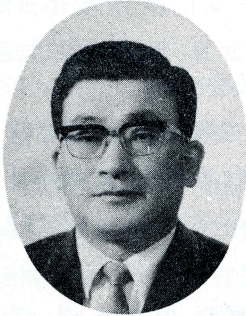
- 築堤工事現場
- 雙竜 놀이
- 丹若의 犧牲
- 丹若 所願群舞

附錄

- 말박기 노래
- 丹若 唱

全 羅 北 道

人 事 말 씀



五穀百果가 알알이 영그러가는 보람찬
季節에 國民 여러분의 家庭마다 幸運과
萬福이 充滿하시기를 祝願합니다.

民俗藝術은 우리 民族의 叡知가 담긴 民
族의 固有한 傳統藝術입니다. 特히 光復 30
年을 맞이하여 民族 主体性 確立이란 大命題아래 잊혀져 가는 民
族藝術을 되찾고 保存하여 文藝中興을 다짐하는 우리 意志와 使
命意識을 드높히는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를 베풀게 되는 것은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本道에서는 稻作文化의 搖籃地이며 湖南平野의 中心地인
金堤地方의 우리 나라 最初最大의 水利貯水地였던 史蹟 第 111號
碧骨堤에 얽힌 哀歡을 담은 雙竜놀이를 여러분에게 보이게 되었
습니다.

이 雙竜놀이는 每年 金堤碧骨文化祭 行事時에 舉行되던 民俗놀
이를 간추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全國民俗競演大會가 民俗發掘保存과 文藝振興의
劃期的인 契機가 되어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聲援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1975年 9月 13日

全 羅 北 道 知 事 黃 寅 性

由 來

1. 碧骨堤

金堤는 湖南平野의 中心地로 米穀生産의 본고장이다.

史蹟 第111號인 碧骨堤는 金堤郡 扶梁面의 鳴琴山과 浦橋部落 사이의 좁은목을 막아 蘆嶺골짜기에서 흘러오는 自然水를 貯溜하여 金堤·井邑·扶安의 廣闊한 穀倉地帶에 給水하여주던 巨大한 貯水地였다.

湖南 湖西의 語源이 여기에서 由來했다는 事實로 미루어 볼 때 얼마나 큰 貯水地였던가는 可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이 碧骨堤는 우리 나라 水利事業의 嚆矢를 이룬 貯水地로서 距今 約 2,000年前 百濟初期에 築造되어 統一新羅 高麗 李朝를 거쳐 近代化된 水利施設이 이룩될 때까지 이 고장의 米穀生産에 큰 구실을 하여 왔던 것으로 金堤地方이 穀倉의 中心部를 이룬 것도 稻作文化의 搖籃地가 된 것도 바로 이 碧骨堤에서 緣由했다고 할 수 있다.

碧骨堤는 當初 堤岸의 길이가 1,800步(約 3.3km)였고 各農耕地로 通水하기 爲한 五渠水門이 있었다고 하는데 統一新羅 元聖王 6年, 高麗 顯宗元年과 仁宗 21년에 重修되었고 李朝太宗 15년에는 各郡의 壯丁 萬餘名을 動員하여 大規模의 補修를 하였으나 李朝世宗 2년에 큰 風雨로 堤堰이 決潰된 後 原型을 찾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現在 남아있는 堤堰과 두개의 水門石柱 그리고 草鞋山의 史蹟 碑等은 2,000年の 悠久한 歷史와 祖上의 빛나는 슬기를 간직한 채 孤高히 그 偉容을 자랑하고 있다.

金堤郡에서는 年次的인 復元事業 計劃을 세우고 이미 一次發掘 調査事業을 마치고 繼續推進中에 있다. 우리 나라 水利事業의 元祖인 碧骨堤의 復元은 農本國家로서 보다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2. 丹 若

新羅 第38代 元聖王때의 일이다. 碧骨堤가 築堤된지가 오래되어 決潰直前に 놓여있어 金堤를 비롯 七個洲의 백성들의 一大死活問題라는 地方官들의 眞摯를 받고 나라에서는 禮作部에 있는 國內 으뜸가는 技術者 元德郎을 現地에 急派 補修工事케 했다.

元德郎은 王命을 받고 머나 먼 金堤땅에 到着하여 工事を 서둘렀다. 金堤太守 由品에게는 丹若라는 妙齡의 딸이 있었다. 元德郎은 주야불철 太守와 같이 뚝 쌓는데 相議를 하다보니 어느덧 丹若娘子하고도 친숙하게 되었다.

丹若是 元德郎을 알게 되면서 그 人物에 戀情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元德郎은 뚝 쌓는 일 외에는 他意가 없었고 특히 故郷에 月乃라는 약혼녀가 기다리고 있으니 더욱 丹若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무렵 住民들은 怨聲이 높아지고 있었다. 옛날부터 이러한 큰 工事は 반드시 처녀를 龍湫에 祭物로 바쳐 龍의 노여움을 달래야 工事が 順調롭다는 것인데 元德郎의 迷信打破하는 고집으로 處女를 龍湫에 넣지않고 工事を 했기 때문에 完工에 가까운 뚝이 무너졌다고 백성들의 不平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이럴 때 서라벌서 男服을 차리고 約婚女 月乃娘子가 金堤까지 元德郎을 찾아왔다. 이 사실을 아는 丹若의 아버지 太守는 月乃娘子를 밤중에 포섭하여 龍湫에 처넣고 딸(丹若)의 所願도 풀어주고 백성들의 怨聲도 일소시키고 뚝도 完成시키는 일거양득을 노리는 計略

을 세웠다. 이러한 父母의 計策을 알게 된 丹若는 良心의 가책을 받았다. “月乃를 죽인다 해서 元徳郎의 決心이 돌아설리 없고 그렇다고 一片丹心을 저버리고 다른데로 結婚할 수도 없는 착잡한 心情이다” 丹若는 오랜 苦悶끝에 自身을 희생시켜 백성의 生命線인 堤防이 完工되고 또한 연모했던 元徳郎이 이로 因해 月乃와 結婚하여 富貴榮華를 누리면 더없는 좋은 일이고 더우기 아버지의 殺人까지 막게 되어 孝道가 되는 것이라는 生覺이 미치자 죽음을 決心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丹若는 月乃 代身 自己가 희생하고 말았다. 이래서 待望已久의 碧骨堤補修工事は 完全하게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緣由로 碧骨文化祭典에서 丹若뽑기가 있고 또한 丹若所願舞가 雙竜놀이와 같이 主行事로 되어 있다.

3. 雙竜놀이

百濟時代에 築造된 碧骨堤는 約二千餘年の 悠久한 歷史와 함께 술한 事緣들이 얽혀져 내려오고 있는데 碧骨堤로 緣由해서 많은 說話가운데 特히 雙竜놀이가 이 地方의 民俗으로 浮刻되고 있다.

傳說에 依하면 現在 金堤郡 月村面과 扶梁面의 境界를 이루고 있는 院坪川을 가로막은 碧骨堤防으로부터 約2 백m 下流地點에 즉 신털미山(草鞋山) 北端에 龍湫가 있다. 이 龍湫에는 白龍이 占居하면서 碧骨堤를 守護했다 하여 一名 碧骨龍으로 稱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碧骨堤 中間 堤防下 約 100m 下流地點에 즉 金堤郡 扶梁面 龍骨部落. 南端을 흐르고 있는 連浦川에 龍湫가 있는데 여기에는 靑龍이 살고 있으면서 아주 심술사나운 짓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 두개의 龍湫를 雙龍湫라 하고 白龍과 靑龍을

雙龍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溫順하고 堤防에 피해를 주지않고 또한 人家에 추호도 손해를 끼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堤防이나 人家를 守護하는 뜻에서 風雨變亂을 防止하는 役割을 해 오는 白龍에 비해 靑龍은 本是 性品이 포악하고 심술꾸러기가 되어서 이따금 風雨亂作을 일으켜 堤防에도 피해를 줄 뿐더러 인근의 家屋, 人命까지도害치고 있었다. 이에 이웃간에 살고있는 白龍의 충고도 듣지않고 亂暴한 行動이 계속되어 끝내는 雙龍의 싸움으로까지 번져 金堤太守 由品の 외동딸 丹若까지 삼키려고 한다.

數萬壯丁이 死力을 다하여 쌓은 碧骨堤를 守護하여 金萬平野의 豐年을 가져오게 하기 爲하여 목숨을 바치려는 丹若의 거룩한 精神앞에는 怒氣등등하든 靑龍도 感服의 눈물을 흘리며 물러서고 만다.

이와같은 丹若의 거룩한 넋을 기리는 民俗놀이인 해마다 金堤郡民의 날인 碧骨文化祭典의 主要行事로 舉行되고 있다.

內 容

第1場 築堤工事 現場

東津江 下流 附近 외뱀이들(外祖味平野) 가운데를 人爲的으로 막아 碧骨堤를 築造한 以來 오랜 歲月이 흘러 뚝이 점차 무너져 가고 있는데 또한 심술궂은 靑龍의 作亂으로 더욱 뚝은 破壞되어 가고 있었다. 碧骨堤의 決潰는 國家的으로 重大한 問題이므로 나라에서도 크게 걱정하고 國內 으뜸가는 技術者, 元德郎을 派遣하여 七個洲의 백성들에게 役事를 하게 하여 補修工事に 나섰다.

이래서 金堤太守 由品과 元德郎은 불철 주야 많은 人夫들을

指揮하며 뚝을 補修하는 場面이 나온다. 夫役하는 백성들은 이 地方 特有한 民謡가락을 부르며 흥겹게 工事に 임하고 있다.

第2場 双竜의 出現

한창 工事を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 먹구름이 일고 天動과 번갯불이 일며 비바람이 몰아닥친다. 이제까지 흥겹게 工事を 하던 백성들은 겁에 질려 얼굴빛이 창백해지며 요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 때 난데없이 꼴 사나운 靑竜이 異常한 소리를 지르며 工事場에 나타난다.

夫役하던 백성들은 기절초풍이 되어 逃亡가는 사람도 있고 무릎을 꿇고 비는 사람도 있다. 백성들은 도망가면서 원성을 터뜨린다. 「이러한 큰 工事에는 自古로 處女를 竜湫에 넣어주어 靑竜을 달래야 되는 것인데 元徳郎인가 똥인가 하는 작자가 迷信打破한다고 우리 말을 듣지 않아 이런 꼴이 되었다」면서 노성이 뚱뚱하다.

이럴 때 또 다른데서 白竜이 고개짓을 하면서 靑竜이 있는 곳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光景이 벌어지자 어느사이 백성들은 뿔뿔이 도망치고 아무도 없다.

白竜은 뚝을 守護하는데서 몇번인가 靑竜을 달래보는 눈치다. 그러나 포악한 靑竜은 듣지않고 뚝을 무너뜨리려 한다. 結局 白竜과 靑竜사이 善惡의 피나는 격투가 벌어진다. 끝내는 白竜이 당하지 못하고 사라진다.

第3場 丹若의 희생

홀로 남은 靑竜은 꺼리낌없이 完工되어가는 뚝을 무너뜨린다. 때를 같이하여 吏屬이 앞에서 指揮하며 교자상에 포삼한 女人(月乃)을 싣고 靑竜앞으로 다가온다. 靑竜앞에 女人을 내려놓고 吏屬들은 包袋를 벗긴다. 이윽고 包袋가 벗겨지는 瞬間 月乃娘子가

아닌 太守의 딸 丹若娘子임을 알자 吏屬들은 놀라며 뒷 걸음질로 逃亡친다.

일어선 丹若는 悲痛한 姿態로 먼저 父母님께 告別人事를 올리고 난 뒤 青竜을 向해 내가 祭物로 왔으니 앞으로는 뜻을 害치지 말고 잘 保護하여달라고 부탁을 한다. 또한 天地神命에게도 이 땅에 永遠히 豊年이 들도록 祈願을 올리고 한 때 짝사랑을 했던 元徳郎이도 月乃와 結婚하여 富貴榮華를 누리도록 祝願을 한다. 그리고 스스로 祭物이 되고자 서서히 青竜앞으로 다가가다가 폭삭 쓰러지고 만다.

이러한 丹若의 態度를 유심히 지켜보던 포악한 青竜도 丹若의 “義”에 감화되어 그저 기쁜듯이 머리를 끄덕이고 뒤로 사라진다.

第4場 丹若所願舞

丹若가 기절한 뒤 由品 太守는 허겁지겁 現場으로 달려온다. 뒤늦게 吏屬의 申告를 받고 現場에 달려온 것이다.

徹倅히 丹若가 죽지않고 氣絶하고 있음을 確認한 太守는 딸을 얼싸안고 自身の 잘못을 깨닫고 丹若의 가룩한 精誠에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丹若는 意識이 들자 아버지 품안에 얼굴을 묻고 감회어린 울음을 터뜨린다.

이 때 吏屬들이나 몸종 다부이 그리고 인근에 있던 백성들이 男女老少를 莫論하고 모두 모여들어 丹若의 義로운 至誠에 天佑神助가 있었다면서 감격한다.

잠시후는 이 고을 慶事를 맞은듯 백성들은 農樂을 치고 農夫歌를 부르며 두둥실 群舞로 幕을 내린다.

말 박 기 노 래

(메깁) 어야라 동동 상사도야

(받음) 들어라 동동 상사도야

(메깁) 얼렐렐 상사도야

(받음) (후렴) 얼렐렐 상사도야

(메깁) 삼백근 몽기가 상하를 물고

(메깁) 삼발대 밑에서 벌날듯한다

(메깁) 열두자 말을 박을라면

(메깁) 우리네 인부들 욱들보겠네

(메깁) 떼다떼다 감독이 떼다

(메깁) 번득들었다 번득놓세

(메깁) 힘만세도 소용없고

(메깁) 소리만 잘하면 제일이다

(메깁) 일락서산 해는지고

(메깁) 월출동향 달 떠온다

(메깁) 먼데사람 듣기좋고

(메깁) 옆에사람 보기좋게

(메깁) 감독나리는 약주집 가고

(메깁) 우리는 탁주로 목풀어보세

(메깁) 아나 농부야 말들어라

(메깁) 새패랭이 꼭지에 개화를 꽃고

(메깁) 매우래기 춤이나 추어보세

丹若의 唱

前略……………

가없고도 가없어라 무남독녀 태수의딸 丹若娘子 가없구나
총감독 元德郎을 一片丹心 흠모터니
약혼녀 月乃娘子的 죽음을 代身하여 마지막 길 떠나는 단야낭자
가없구나
허튼머리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드니 두손 합장 비는말이
외로우신 학발양친 不孝女息 죽사와도
元道令 月乃娘子를 子息같이 여기시고 의지하여
만수무강 하옵시고 만종록을 누리사이다
元德郎 月乃娘子는 맺은 가약 꽃피워서 백년해로 하실적에
무자헌 울아버지 그리고 불쌍한 울어머니 부모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천만축수 소청하며 이 한몸 바치오니 가이 통촉하옵소서
소리없이 우는 娘子的 하염없는 눈물이 옷깃에 적실적에
비건밤 초생달은 城山에 걸렸으니
오늘밤 산천경계가 왜 이다지 처량헌고…… 後 略……………

演 出 者

發掘指揮：鄭 鎮 亨 文協金堤支部長
全北文化財專門委員

總 指 導：朴 順 浩 群山水專教授
全北文化財專門委員

出 演 者 名 單

太 守：홍 태 일

工事總監督(원덕랑)：김 준 석

吏 屬：김 정 황

軍 官：박 성 진

포 졸：전 정 식 허 치 열

교 자 軍：김영식 이창영 전수석 윤취병

丹 若：이 영 신

시 녀：김 정 희

築堤人夫 : 박영달 송재수 임순진 한광희 박영래 박규남
 양영철 김규남 박성문 백일용 김원홍 이오성
 박기동 한삼동 한순동 박종민 윤원병 윤홍병
 허정렬 이남주 최중순 유재창 황홍택 정화열
 정오열

동내부인 : 이혜순 김덕자 장년자 송옥선 양동주 한순금
 조부기 서종님 홍정이 이호창 장순자 전복례
 박용례 박순금 박점례

쌍용놀이 : 홍대의 장광석 김시영 김태훈 배홍섭 이혜준
 오희윤 조은모 나광석 김종기 김권성 성하경
 최형곤 광근찬 정양근 박재규 이인성 이주현
 박종만 나명희 김영식 한성중 정정모 장광영
 이승호 강수태 나상영 이운섭 송희섭 최종남
 나형균 김성남 임기정 정득수 강명석 이희영
 김일곤 전승식 유청운 나희중 나훈식 박승배
 김 강 김주환 김우철 권태봉 김종복 김강봉
 김화식 김판권

— MEMO —



창조하자 민족문화 이룩하자 문예중흥